



최근 유로존 경기회복 가능성에 대한 논란

최 원 선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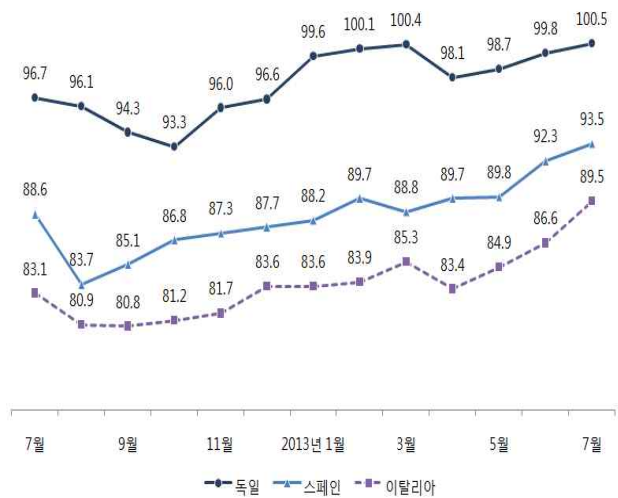
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7월 유로존(17개국) 경기체감지수(ESI)¹⁾가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,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유로존 경기회복 신호라고 주장함.
- 7월 유로존 경기체감지수는 은행 등 금융산업 안정과 제조업 수출 회복세로 지난 6월 91.3보다 1.2p 상승한 92.5를 기록하였으며, 5월 89.5에 비해 3.0p 높아짐.
- 7월 독일 경기체감지수가 전월 대비 0.7p 상승한 100.5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실물경제가 악화되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기체감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각각 93.5, 89.5를 기록함.

〈그림 1〉 유로존(17개국) 경기체감지수



자료: Eurostat.

〈그림 2〉 독일, 스페인, 이탈리아 경기체감지수



자료: Eurostat.

1) 경기체감지수(Economic Sentiment Indicator)는 제조업(40%), 서비스업(30%), 소비자신뢰(20%), 건설업(5%), 소매거래(5%)로 구성되며,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.

■ 2013년 2/4분기 영국 GDP성장률이 2013년 1/4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며, 2/4분기 GDP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독일, 프랑스, 스페인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
- 2013년 1/4분기 영국 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.5%p 상승한 0.3%를 기록하였으며, 2/4분기에도 서비스업, 제조업, 건설업 부문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.3%p 높아진 0.6%를 나타냄.²⁾
 - 2012년 3/4분기 영국 GDP성장률이 2012년 런던올림픽 효과로 0.7%를 기록했으나, 2012년 4/4분기 -0.2%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바 있음.
- 독일 GDP성장률은 2013년 1/4분기 전분기 대비 0.8%p 상승한 0.1%를 기록하여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,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및 내수시장 안정성을 근거로 2/4분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프랑스 재무장관은 2013년 2/4분기 프랑스 GDP성장률이 0.2%를 기록하여 1/4분기 -0.2%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, 스페인 중앙은행은 2/4분기 스페인 GDP성장률이 -0.1%를 기록하여 1/4분기 -0.5%에 비하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.

■ 한편,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유로존 실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 유로존 실업률 상승 추세도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.

- 2013년 6월 유로존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2만 4,000명 감소한 1,926만 6,0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, 유로존 실업자 수의 전월 대비 감소는 2011년 4월 이후 처음임.
- 유로존 실업률은 2013년 3월 사상 최고치인 12.1%를 기록한 이후 6월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■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체감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고, 유로존 경기회복 신호가 경기부양책과 지속적인 저성장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함.

- 따라서 최근 다양한 유로존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, 유럽중앙은행(ECB)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.
- 또한, 유로존 실업률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본격적인 실업률 하락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, 한국경제 등)

2) 영국 통계청(ONS).